

Jump Up!

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 및 송년의 밤 개최



- 1 주요 참석자들이 협회 창립 10주년을 축하하고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떡을 자르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태희 수석부회장, 진대제 정통부 장관, 오명 부총리, 조현정 회장, 이희범 산자부 장관, 최홍건 중소기업위원장, 김성진 중기청장, 이민화 고문
- 2 행사는 400여 명의 벤처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 3 벤처 10년 역사를 돌아보는 사진전이 개최돼 큰 호응을 얻었다.
- 4 행사를 축하하는 사람들이 공연

협회(회장 조현정)는 12월 7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 및 2005년도 송년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1995년 12월 창립된 이후 건전한 벤처 생태계 조성 및 성장인프라 구축을 주도하며 벤처업계 대표단체의 역할을 수행해 온 협회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과거를 되돌아보고 향후 협회와 벤처업계가 추구해야 할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Jump Up! Next 10 years' 라는 슬로건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협회 창립 10주년을 축하하는 '축하의 장' 과 회원사 중심의 협회로 거듭나기 위한 '다짐의 장', 벤처인들의 화합과 친목을 교류하는 '송년의 밤' 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중소기업청장 등 정부측 인사를 비롯해 언론사 사장, 유관기관 임원, 각계각층의 벤처인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조현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 창립 10주년을 벤처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숙해지는 전환점으로 삼을 예정"이라며, "앞으로 건전한 벤처 생태계 조성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명 부총리, 이희범 장관, 진대제 장관은 축사와 치사, 격려사를 통해 창립 10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 국가 경제의 희망으로서 협회와 벤처기업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 NHN 최휘영 대표와 경북대학교 이장우 교수가 과학기술부총리 표창, 티켓링크 우성화 대표와 협회 오형근 상근부회장이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다날 박성찬 대표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광성신 본부장이 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Next 10 years



“2015년 GNP 20%, 성장률 50% 기여달성”

조현정 회장 향후 비전발표

“이제는 ‘벤처 확산(Venture Expansion)’이다.”

조현정 회장은 이날 ‘벤처, 도전의 10년에서 도약의 10년으로’라는 주제로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

에서 “벤처기업이 2015년 국민총생산(GNP)의 20%를 달성하고 경제성장률의 50%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회장은 “이제 벤처업계는 지난해 말 정부의 ‘벤처 활성화 정책’을 기반으로 벤처거품의 후유증을 딛고 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벤처업계 질서 구축을 통해 벤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건전한 M&A, 벤처캐피탈의 활성화, 벤처 패자부활 기반 마련, 공정거래제도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벤처업계의 2015년 4대 목표로 ▲국민총생산(GNP)의 20% 달성 ▲GNP 성장률의 50% 기여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신노사문화) ▲선순환 발전을 위한 공헌문화 확산 등으로 정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벤처 확산(Venture Expansion)’ 시대로 돌입해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4

기술과가치 임윤철 대표와 김&장범무법인 백만기 변리사는 중기특위 표창, 백금정보통신 임학규 대표와 수도프리미엄엔지니어링 안철 대표, 한양대학교 한정화 교수는 중소기업청장 표창을 받았다. 협회장 표창은 네오웨이브 최두환 대표, 사이버다임 현석진 대표, 바로비전 고진 대표, 협회 이정민 팀장이 수상했다. 협회 이민화 고문과 장홍순 前 회장에게 특별공로패, 중기특위 송중호 정책심사관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에 앞서 10년간의 발자취를 소개하는 ‘KOVA가 걸어온 길’ 영상자료가 상영됐으며, 조현정 회장은 ‘벤처 도전의 10년에서 도약의 10년으로’라는 주제로 향후 협회와 벤처업계에 나아갈 길과 관련한 비전을 발표했다. 또한 상설로 10년의 벤처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사진 및 기사로 보는 벤처 10년’ 전시회가 열려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주요 수상자 명단

- ◎ 과학기술부총리 표창
최희영 대표(NHN), 이장우 교수(경북대학교)
- ◎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우성화 대표(티켓링크), 오형근 부회장(벤처기업협회)
- ◎ 정보통신부장관 표창
박성찬 대표(다날), 광성신 본부장(한국증권신문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 ◎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표창
임윤철 대표(기술과가치), 백만기 변리사(김&장범무법인)
- ◎ 중소기업청장 표창
임학규 대표(백금정보통신), 안철 대표(수도프리미엄엔지니어링), 한정화 교수(한양대학교)
- ◎ 벤처기업협회장 표창
최두환 대표(네오웨이브), 현석진 대표(사이버다임), 고진 대표(바로비전), 이정민 팀장(벤처기업협회),
- ◎ 특별공로패
이민화 고문, 장홍순 前 회장
- ◎ 감사패
송중호 정책심사관(중소기업특별위원회)